

숨 고르던 '재활 호랑이' 발톱 세운다



김병현 '호랑이' 됐다

KIA 김영광과 1대 1 맞트레이드

서재응·최희섭과 ML 삼총사 한술밥

광주일고 빅리거 3인방이 같은 유니폼을 입는다. 넥센 투수 김병현이 10일 KIA 신인 김영광과 트레이드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온다.

김병현의 트레이드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광주일고 빅리거 3인방 서재응·김병현·최희섭이 19년의 시간을 두고 다시 한 팀에서 뛰게 됐다.

이들은 1995년 광주일고 청룡기 우승의 주역이다. 만형 서재응이 김상훈과 배터리로 호흡을 맞췄고, 김병현은 공·수에서 활약한 무서운 2학년이었다. 막내 최희섭은 4번 타자로 광주일고 공격을 이끌었다.

김병현은 "고향 팀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야구를 시작할 때부터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고 싶었는데 이제야 그 꿈을 실현하게 됐다. 앞으로 팀과 고향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팬 여러분의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서재응, 김상훈 선배, 최희섭과 함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고교 이후 한 팀에서 한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빅리거를 누볐던 이들은 지난 2012년 김병현이 마지막으로 국내 유턴을 하면서 다시 같은 리그에서 뛰게 됐다.

2013년 3월31일에는 서재응과 김병현이 나란히 선발로 출격하는데 최희섭이 5번 타자 겸 1루수로 출전하면서, 빅리거 3인방이 졸업 후 처음으로 한 그라운드에서 실력을 겨루기도 했다.

한편 KIA는 지역출신의 베테랑을 영입하면서 불펜의 약점을 보완하게 됐다. 선동열 감독은 시즌 출발에 앞서 "불펜에 어린 선수들이 많은 만큼 베테랑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선 감독은 자신의 말처럼 백전노장 서재응과 김태영을 필승조로 투입해 어려운 불펜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김병현의 경험과 넥센에서의 좁은 입지, 여기에 고향팀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이번 트레이드가 성사됐다.

은밀하게 진행된 트레이드였다. 입단 2년째 안돼 팀을 옮기게 된 김병현은 뒤늦게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트레이드 사실을 접했다. 흥악대를 졸업한 김병현은 올 시즌 2차 4번으로 KIA 지명을 받은 좌완으로 투구 밸런스와 볼 끝이 좋아 잠재력을 갖춘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좋은 재목이지만 당장 실전에 투입할 수 없는 만큼 KIA는 투기의 가능성과 김병현의 경험을 맞바꿨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심동섭

불펜 피칭 40개 쾌투 다음주엔 2군 피칭도 가능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의 땀방울로 KIA 함평 헬린저스 필드가 뜨겁다.

KIA 재활군은 올 시즌에도 화려하다. 부상 악몽을 피해가지 못하면서 특급 재활군이 헬린저스 필드에서 이를 악물고 있다. 선발 김진우를 필두로 해서 불펜의 핵심 요원으로 꼽힌 심동섭·곽정철·박지훈·유동훈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개막 하루 만에 부상병이 된 김주형도 헬린저스 필드를 부지런히 오가고 있다. 팬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범석도 재활군에서 숨을 고르고 있다. 최희섭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단 마운드 요원들의 재활과정은 순조롭다. 박지훈의 페이스가 가장 빠르다. 정상적으로 피칭을 하면서 실전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개막을 앞두고 재활군이 됐던 심동섭은 10일 불펜에서 전력으로 40개의 공을 던졌다. 다음 주에는 2군 피칭도 가능할 전망이다.

심동섭은 "아프지 않고 공을 던졌다는 부분에서 기분이 좋



김진우

종아리 타구 부상 통증 호전 캐치볼 시작...피칭 준비 돌입

다"고 이날 피칭에 대해 만족감을 보였다. 캠프 중반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던 곽정철의 표정도 한결 가벼워졌다. 차근차근 5월 중순을 향해 걸음을 옮길 생각이다.

곽정철은 "성실하게 했는데 부상이 와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다. 7번 수술을 받았는데 한번 더 못 버티겠느냐는 생각을 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 자세를 돌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가장 마음이 무거운 이는 김진우다. 시범경기 도중 종아리에 타구를 맞았던 김진우는 예상보다 회복세가 더디면서 사람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가끔 짜릿한 통증이 있는 정도다. 캐치볼도 시작했고 조금씩 피칭 준비를 해가고 있다"고 말한 김진우는 "팀 전력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나마 팀이 잘 나가고 있어서 다행이다"고 밝혔다.

포구 도중 무릎을 다쳤던 김주형은 다시 방망이를 들었다. 통



김주형

무릎 부상 회복 티베팅 시작 다음주 2군 경기 출전

증없이 티베팅을 하고 있다. 다음 주 2군 경기에서 타석에 다시 설 계획이다. 팀의 승승장구가 반가우면서도 마음이 급한 김주형이다.

김주형은 "팀이 잘나가서 기분이 좋지만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웃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베테랑 유동훈과 최희섭은 서두르지 않고 완벽한 복귀를 준비할 계획이다. 재활군을 벗어나 1군 무대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선수도 있다. 지난해 발목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김원섭은 퓨처스 리그에서 감을 조절하고 있다. 10일 홈에서 열린 상무와의 경기에도 출전하는 등 길었던 공백을 채워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제 막 재활에 이름을 올린 선수도 있다. 2년차 포수 이흥구가 9일 경기에서 상무 정영일의 공에 맞아 손등뼈가 골절되면서 당분간 그라운드를 떠나야 한다.

/함평=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심기일전' 류현진, 2승 사냥

내일 애리조나 원정경기 등판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기동 투수 류현진이 11일(현지시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원정 3연전 첫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다저스 돈 매팅리 감독은 9일 다저스타디움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홈 경기를 앞두고 "11일 애리조나 원정 경기 선발은 류현진"이라고 밝혔다.

류현진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 개막전 등판 이후 6일을 쉬고 마운드에 오르게 됐다.

다저스가 치른 초반 6경기 가운데 3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혹사 논란'마저 낳았던 류현진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려는 매팅리 감독의 배려가 엿보인다.

애리조나 원정 3연전 첫 경기에 류현진을 내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잭 그레인키는 12일 두번째 경기 선발로 낙점됐다. 그레인키도 5일간 휴식을 취한 뒤 등판하는 셈이다.

한편 다저스는 9일 경기에서 조시 베크를 선발 투수로 등판시켰다. 11개월만의 메이저리그 복귀전이다. 베크는 지난해 고작 8경기를 치르고 나서 5월13일 등판을 끝으로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플로리다 말린스 유니폼을 입고 2003년 월드시리즈에서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던 베테랑 베크의 복귀로 다저스 선발 투수진은 한결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